

Message: Lead Us 인도(引導), A Socialized Holy Communion

When I was a kid, I would study in the morning and then, in the afternoon, I would go out and play, when school was on vacation. After playing with my friends, I was so sad to see the evening come.

Because I had to go back home for dinner.

I was never a kid who loved food (trust me!).

제가 어린 시절, 방학을 맞이하면 오전에 공부를 했고 오후에는 나가서 놀았습니다.

친구들이랑 놀다가 보면 저녁이 오는것이 너무 슬펐습니다.

저녁을 먹으러 집으로 돌아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음식을 좋아하던 어린이는 아니었습니다. (믿어 주십시오!)

So if I played with my friends for a longer time, my mom would come looking for me. And I knew I had to get home before my mom called me. Otherwise, I would get in trouble.

Once, like Joshua in the Bible, I declared, “Stop the sun! Stop the moon!” And it never happened to me.

그래서 친구들과 더 놀다가 보면 엄마가 저를 찾으러 왔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부르기 전에 집에 가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안그럼 혼났을테니까요.

그래서 저는 성경의 여호수아처럼, “태양아 멈춰라!, 달도 멈춰라!”라고 선포한적도 있었습니다.

제게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As a kid, playing was better than eating at home.

However, after graduating from college and starting to work, I realized that I didn't have as much time to eat with my family at home.

I recall that when I was over 30 years old, my most precious memories were of eating with my family at home, just as my mom used to prepare our meals when I was younger.

저는 어릴때 노는 것이 집에서 밥을 먹는 것보다 더 좋았습니다.

그런데, 대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른살이 넘고 나서는 어릴때 엄마가 집에서 해 준 음식을 가족과 함께 먹은 것이 가장 소중한 기억이 되었습니다.

Not all of you have the same good memories of your mom as I have.

May God's comfort and love be with those of you who still have painful memories of your parents.

And, may this picnic service be a gift of laughter and peace to you.

여러분 모두가 저와 같이 엄마에 대해서 좋은 기억만을 갖고 계시지는 않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부모에 대한 아픔을 아직 갖고 계신 분들께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피크닉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웃음과 평안을 주는 선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Today is the first Sunday of June, a Communion Sunday, but it's an outdoor service. So, it occurred to me that it would be nice if today's outdoor service could be a social Communion.

오늘은 매달 첫 주일, 성찬이 있는 주일입니다. 그러나 야외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외 예배가 사회적 성찬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The Maundy Thursday meal, when Jesus said, “Remember me,” was one of the most important statements made by Jesus that we still honor today with the Holy Communion service. Following Jesus’ request, the table service which we experience together today was actually started by the disciples and other followers of Jesus in response to his request for us to “take the bread and eat it, in remembrance of him.”

In the early churches, we see that the Corinthian church prepared food together and participated in Communion.

At that time, the sacrament was more like a meal.

예수님이 “나를 기념하라” 하신 성 목요일의 식사는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에 의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을 오늘날에도 함께 기리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보면, 고린도 교회에서 함께 음식을 준비해서 성찬에 참여했음을 알게 됩니다.

당시에는 성찬이 식사에 가까웠습니다.

So, after the sacrament, wealthy people were eating and drinking a lot .

그래서, 성찬을 마친 부유한 사람들이 식사를 많이 하고 술에 취해 있기도 했습니다.

By the way, today there will be no wine with our meal. We will not have any alcohol served today.

참고로, 오늘 알코올이 첨가된 술은 없습니다.

In the Corinthian church, rich people were taking their own food and eating their own food during Holy Communion, and this was a big problem for Paul. It's one of the reasons that the letter we know today as 1 Corinthians was written. This is why Paul explains the meaning of the Lord's Supper in 1 Corinthians. It's “a remembrance and a celebration of Jesus.”

고린도 교회는 부자들이 자기네들끼리 음식을 갖고 가서 성찬을 하며 자기네들끼리 맛있는 것을 먹었고, 이것은 바울에게 큰 지적을 받았습니다. 고린도 전서가 쓰인 이유 중 하나가 여기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때문에 고린도 전서에서 성찬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라고 말이죠.

Today, we will not celebrate the traditional Communion that we are used to performing in the Sanctuary.

오늘 우리는 성전 안에서 행해지는 전통적 성찬은 하지 않습니다.

Rather, today, in the name of Jesus, and in remembrance of Jesus, we will have **a practical and social Holy Communion** of hamburgers, sausages, and other foods and drinks.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햄버거와 소세지, 그리고 다양한 음식들을 나누는 실천적, 사회적 성찬을 할까 합니다.

We share all this food together, sing songs, and exercise, dance, run, or walk around the church block after the meal.

이 많은 음식을 함께 나눕니다. 노래도 부릅니다. 운동, 춤, 달리기도 좋습니다. 식사후에 교회 블럭을 걸으셔도 좋겠고요.

I hope this Picnic Sunday is a memorable service for you.

저는 이 야외 예배가 여러분들의 기억에 남는 예배이기를 바랍니다.

With Jesus, the members of Westwood United Methodist Church prepared all of our food that we will enjoy.

예수님과 함께, 웨스트우드 교회가 함께 준비 했습니다.

I don't know if you've heard of Social Holy Communion. Have you ever heard about it? This is the first time I've used the word.

사회적 성찬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도 안들어보셨나요?
제가 처음 써본 단어입니다.

When we remember the Lord while eating, I think that captures the essence of Holy Communion

식사를 하며 주님을 기억하면, 그것이 성찬의 핵심을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This Holy Communion represents God's presence with us, and this is how we recognize that God is leading us.

저는 이 성찬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성찬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On this wonderful day, as we eat and drink together, may we think of Jesus, and may we think of God's presence with us.

오늘 이 기쁜 날, 함께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생각하는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Christ has died,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Christ is Risen,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Christ Will Come Again,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십니다.

Amen, 아멘

Let us pray 기도하겠습니다.

Through our picnic service today, give us comfort and give us joy,
comfort our members who have been sick in spirit and body
during the pandemic and beyond.

Make our table today a table of joy and a table of grace.

오늘 우리의 피크닉 예배를 통해서 위로를 주시고 기쁨을 주옵소서,
팬데믹으로 영과 육으로 아파했던 우리 성도님들 위로해 주십시오. 기쁨의
자리와 식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We pray in Jesus' name. Amen.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